

IADR한국지부 제 7차 학술대회 및 제 5회 정기총회 개최

- 특별강연 5연제, 구연 39연제, 포스터발표 13연제등 발표
- 金周煥초대회장의 基金勸捨로 凡湖학술상 制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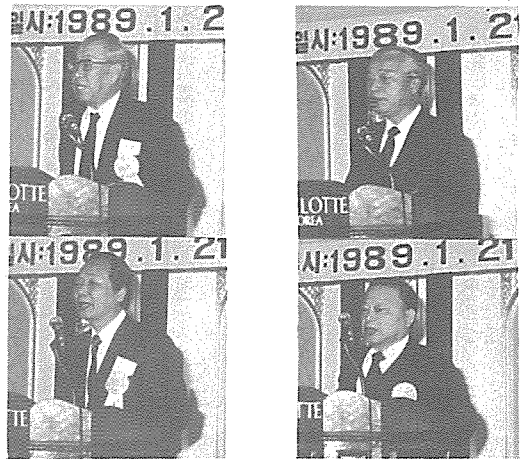
<第 7 回 國際齒科研究學會 (IADR) 韓國支部會 學術大會의 開會式 (圓內는 梁源植 會長)

국제치과연구학회 (IADR) 한국지부회 (회장 : 양원식)는 지난 21일 롯데호텔에서 제7차 학술대회 및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중수협회장, 김주환초대회장, 마사요시 오아시 IADR 일본부회 (日本部會) 회장등 내빈들과 1백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대회 개최식에서 양원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발전과 함께 모든 과학·기술분야가 고도화되고 있으나 치의학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치의학 부흥을 위해 치의학의 올림픽이라 할수있는 IADR총회를 95년 한국에 유치하기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고재승교수 (서울치대)의 (시험관내 골형성 및 골흡수)등 5연제의 특강과 구연 39연제, 포스터 13연제가 발표됐다.

한편 이어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95년 IADR 총회유치등의 사업계획에 따른 1천1백48만원규모의 8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으며 「성장중인 환취두개관에서 연령에 따른 퓨린 이화대사효소활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민병무씨 (서울치대구강생화학과 전임강사)가 제1회 범호 (凡湖) 신인학술상을 수상했다.



(開會式에서 祝辭하는 金周煥初代會長, 李耀斗 次任회장, 金明석서울치대학장, Ohashi JADR 회장)

이 신인학술상은 김주환초대회장의 기금회사에 따라 김씨의 아호인 (凡湖)를 따 금년에 처음 제정 되었으며, 치의학연구 의욕의 고취와 치의학의 첨단적연구로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치의학의 향상, 발전을 기함을 그 정신으로 하는 상으로서 상패와 부상으로 상금이 수여되며, 앞으로 시상은 매년 계속된다.

이어 차기 회장 선거에 들어가 서울대치대 구강병리학교실의 임창윤교수가 압도적지지를 받아 임기2년의 차기회장 (1990년도)으로 당선되었다.

관련기사 P. 148 참조